

첫 번째 사서들

사사기 3:1-11, 고린도후서 12:1-10

최정웅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성령충만한 가운데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이 지옥같은 곳이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을 생각할 때, 한국 청년들이 많이 절망에 빠져 있는가보다 생각이 들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지옥 같은 시절을 안 겪어본 것이다. 일제시대도 겪지 않았고, 6.25의 참담함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돌맹이로 항문을 닦던 일을 모른다. 지푸라기를 구겨서 항문 닦던 일은 모른다. (웃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던 시절을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구 안에는 지금도 지옥 같은 환경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어려운 민족과 나라가 많이 있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시대가 후대에게 희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진 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 시대가 정말 위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헬 코리아라고 할 때는 육신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돈 문제, 취업 문제, 집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만 보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배경을 가진 문제들이 많이 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 복음을 사단이 못 붙잡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원색 복음이 아닌 섞은 복음, 완전 복음이 아닌 희미한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게 한다. 이런 속임수에 지금 교회까지 속아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시대와 후대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시대 문제의 진짜 모습인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두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는다. 이것을 사사기 3장을 통해서 목상해 보고자 한다.

1.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빨리 그것부터 찾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왜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을 본문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문제를 안겨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문이 갈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영안을 떠야 한다.

(1)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한다. 사3:4에,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에 저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각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신6:4-9을 보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영원히 여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하라고 했다. 요14:21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각인시키고,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해 표어대로, 마음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실천함으로써 체질에까지 영향을 주는, 순종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2) 문제 속에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상과 혼합 종교로 속이는 사단의 전략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사3:5-6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당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해 버렸다. 1천 비단을 두고, 감람산 기슭에 그들의 궁실을 짓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간파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 우상 섬기는 일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사단은 지금도 섞이게 하고 있다. 원색 복음 대신에 섞은 복음을 붙잡다가 스스로 망하게 한다. 어느 순간 그 순수 복음을 떠나서 다른 신, 우상 문화를 섬기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 전략이 문화로 무섭게 파고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결국 후대는 제양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동네에서 불러내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창12:1-6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고후6:15에는, 하나님과 벨리알 귀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다. 섞이게 하고 희미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과 우상 문화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원한다. 우리와 우리 후대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한다.

(3)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얻었는데, 문제는, 기도에 실패하니까 그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오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 평상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렘33:3에 말씀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하시려고 준비해 두셨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겔36:37을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눅 18장에는, 계속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사인이다.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한다.

2.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크게 두 번째다. 이 문제 속에 빠진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으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시대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이 두 번째 목상할 내용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문제 만난 한 시대를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사3:9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다. 사3:15에도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했다. 이 구원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당연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 사사들을 말한다. 주의 종들을 말한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한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다. ‘내가 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한

구원자를 바라보는 저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 바라보는 답, 믿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도 그 현장을 구원할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뻔진 2:9이다.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리라고 했다. 현장을 살릴 주인공으로 바로 서라,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전도제자가 되라는 명령인 것이다.

(2)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현장 살리는 사사의 응답을 주시는가? 오늘 사사기 3장에는 세 명의 사사가 나온다. 간단한 기록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찾을 수 있다.

① 하나님은 여호와와 영이 충만한 자를 사용하신다. 웃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또 갈렙의 사위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내용과 근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최고의 제목은 무엇인가?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악한 시대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다. (엡5:18)

②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람이 보기에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응답의 문이 될 수 있다.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었다. 지금은 왼손잡이가 운동을 더 잘 하고 골프도 잘 하고 그러는 것 같다. 야구도 왼손잡이 투수들이 유리한 것 같다. 요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대만 해도, 왼손잡이는 좀 모자란 사람,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왼손으로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손을 때리셨다. 오른손을 쓰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오른손잡이다.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렇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는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이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에훗의 왼손을 통해서 왼수를 이기게 하셨다. 왼손으로 왼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모든 약점이 전부 강함으로 바뀌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너희도 가져라 하시는 것이다. ‘에훗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시는 것이다.

③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 사3:31에, 단 한 절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언약을 붙잡고 성령충만을 받으면, 약점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전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가진 작은 기능, 작은 물질로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방한복 판매 일을 시작해서 1등이 되었다고 한다. 회사 사장이, ‘자네, 나와 동업하자’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배우가 될 것입니다.’ 사표를 쓰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연예계가 얼마나 어렵나. 날마다 절망이다. 한 번은 중요한 주연배우 역할을 맡았는데, 제대로 해서 성공해 보려고 현장에 딱 왔더니, 감독이 미안하다, 배우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완전히 절망해서, ‘나 이제 배우 안 하겠다’ 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간다고 신청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감독이 찾아오더니,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의 이순신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이민 가려고 준비를 다 해 왔다’ 하는데, 사정을 하는 것이다. ‘가더라도 이것만 하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불멸의 이순신이 되어 버렸다. (웃음) 그해에 연기대상도 타고 그랬

지 않다. 지금은 톱 클래스의 배우가 되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사람의 노력도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연약한 것도 관계없다. 작은 것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행여’를 믿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번 주간에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배경도 없다고 해도 괜찮다. 많은 청년들이,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헬조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 불신자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란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물으셨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지팡이 하나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로를 이기며,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이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 보라.” 던졌더니 큰 뱀이 되었다. 놀라서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뱀은 머리로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모세야, 봤느냐? 뭐, 안 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여러분이 아시지 않나. 모세가 회생 제사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상 문화와 혼합 종교가 가득한 애굽 땅을 떠나서 복음을 붙잡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천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령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민족을 살려냈다. 아직까지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 정치, 경제, 군사, 민족 사상, 모든 것을 모세만큼 지도한 지도자가 지금도 없다. 그 지팡이 하나로 세계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바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들은,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작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나의 부족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축복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사들을 목상하면서,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남겨 두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간 사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 작은 것을 가지고도 넉넉히 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여 증인되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램뎀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 부르다가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는 신앙이 되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